

‘소통과 화합’의 불교시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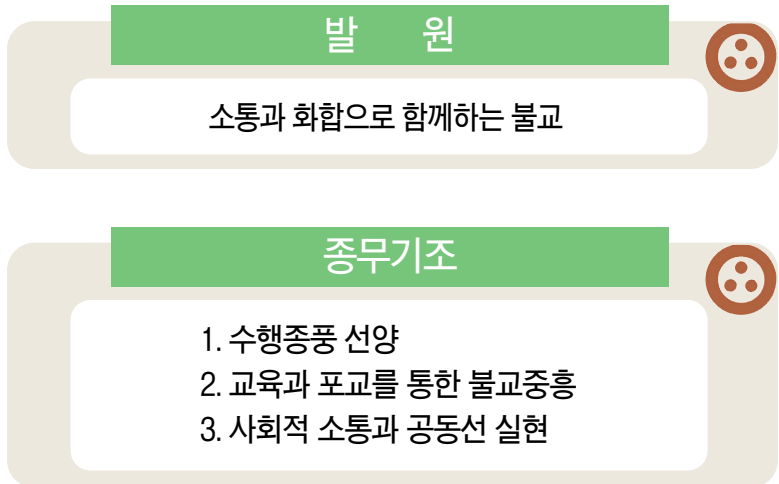
총무원장 자승스님, 12일 신년 기자회견
33대 집행부 종단발전 4개년 계획 발표
‘3대 중무기조 11대 핵심과제’ 로드맵 제시

종단 발전을 위한 4개년 발전계획이 공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제33대 대한불교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밝힌 종단 발전계획의 핵심 발원은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이다. 총무원장 취임이후 줄곧 제시해온 정책방향으로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를 근간으로 한 3대 중무기조를 제시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라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종단과 한국불교가 지향해야할 구체적인 기동인 3대 중무기조는 △수행중흥 선양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 실현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밝힌 3대 중무기조는 지난 7일 법전 중정예하의 신년교시와도 일맥상통한다. 법전 중정예하는 “조계종 중지 선양을 통한 수행중흥의 확립과 함께 사회적 소통으로 공동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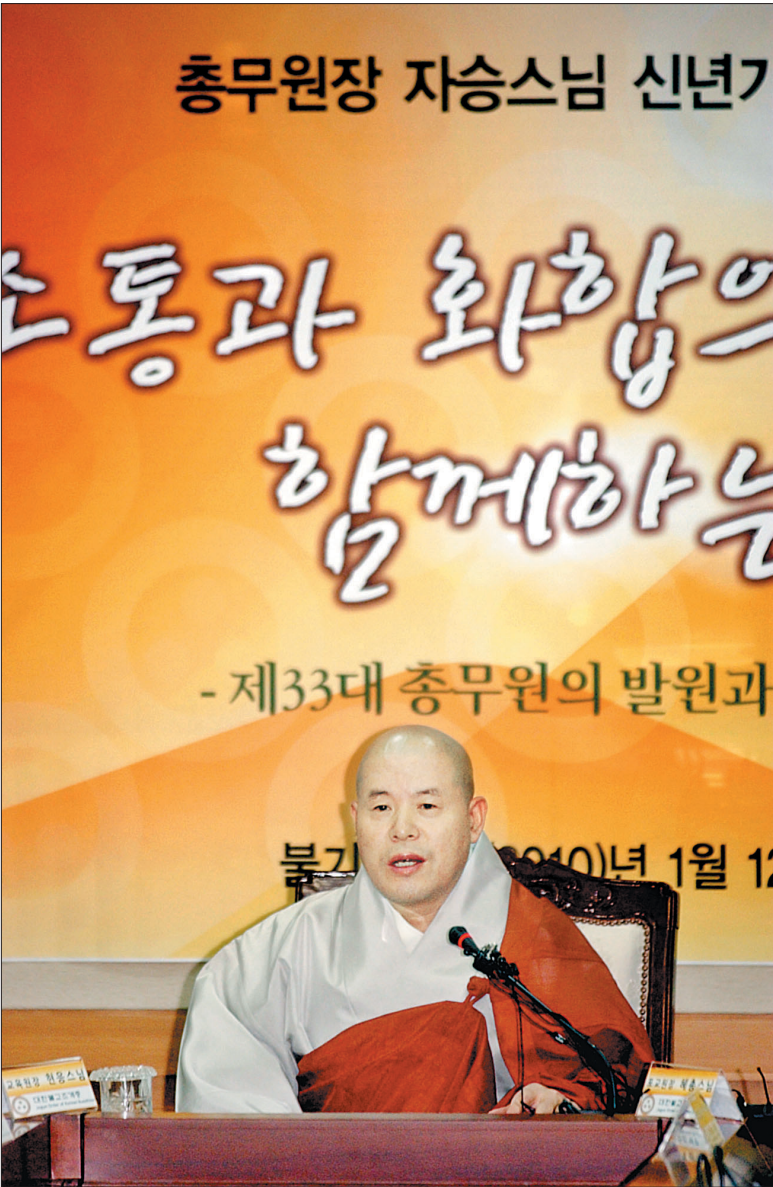
교중흥의 대전기(大轉機)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중정 예하의 교시를 받들고 종도들의 뜻을 모아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불교’를 제33대 총무원의 발원(發願)으로 삼았다”면서 “종단 안과 밖으로 소통과 화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는 3대 중무기조를 뒷받침할 11대 핵심과제와 25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11대 핵심과제는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 개선 △종교간 평화와 협력을

통한 공동선 실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화쟁(和靜) 위원회 구성 등이다. 25대 주요과제는 △주지 인사교과 제도 시행 △10·27법난 명예회복 및 역사교육관 건립 △불교규제 국가법령제·개정 추진 등이다.

총무원장 스님이 밝힌 ‘종단 4개년 발전계획’은 단계적으로 제33대 총무원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담겨있다. 향후 4년간 종단의 운영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인 것이다. 또한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설계이기도 하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의 4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발전계획은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로드맵의 첫 단계로 조계종이 사회공동선 실현의 주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수행·문화가 함께 하는 포교지

불교신문 토요일자 지면 안내

삼성경제연구소 박사가 말하는 ‘불교와 경제’ 6면

불교,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사회와 소통할 수도 없고 고통 받는 중생과 함께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자 ‘선(禪)·교리’ 면에서는 불자라면 꼭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우학스님의 무문관 강설’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보경스님의 42장경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 이연오 박사가 풀어내는 ‘불교와 경제’는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가야할 길을 가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활기 넘치는 ‘지상법석’ 7면

지난해 60대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마련했던 ‘지상법석’의 법사를 50대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수행·포교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중진 스님들의 현장감 넘치는 감로법문이 펼쳐질 것입니다.

전문서적,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11면

경전, 학술서적은 으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둡니다. 김종환 기자가 구성하는 ‘툭아 보는 불교전문서적’ 코너를 애독하다 보면 어려운 서적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기획 / 30돌 10·27법난을 다시 생각한다 14면

“불교문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2010 불교신문 신춘문에 시상식

불교문학 신예작가의 등용문인 ‘2010 불교신문 신춘문에’ 시상식이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지가 주최한 이날 신춘문에 시상식에서는 ‘관음스카프’로 소설부문에서 당선된



지난 11일 열린 신춘문예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성주 씨(동화·사진 왼쪽), 안병호 씨(시·사진 가운데), 이마산 씨(소설).

이마산 씨와 ‘배의 기원’으로 시 부문에서 당선된 안병호 씨, 동화 ‘못난이 엄마’를 쓴 박성주 씨가 각각 당선패와 상금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총무원장이자 불교신문 발행인 자승스님을 대신해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이 시상했다. 영담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신문 신춘문에는 한국불교문학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불교문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0 불교신문 신춘문에는 시·시조 329편, 동화 113편, 단편소설 99편, 평론 6편 등 모두 547편이 출품됐으며, 시와 동화, 단편소설에서 당선작을 선정했다. 단편소설 당선작에는 상패와 상금 450만원, 동화와 평론 당선작에는 각각 상패와 상금 350만원, 시·시조에는 2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주요과제 반영위해 함께 노력”

33대 총무원 로드맵 각계 반응 뜨겁다

12일 발표된 조계종 제33대 총무원 집행부 청사진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더 불어 소통과 화합, 불교중흥을 강조한 집행부인 만큼 불교계 밖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표하며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동선 실현에 동참할 태세다.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웅산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종단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집행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종단과 지역불교계가 힘을 모아 세종시 논

란으로 상심이 큰 충청도민들의 마음을 살피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총회의원 도공스님은 “많은 정책 모임의 신뢰를 얻어 출범한 집행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화합을 이루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총무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들이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교, 교육, 수행 등 불교계 일선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가 남다

르다.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전계사) 해남스님은 “요즘처럼 세대와 지역 간 단절이 심한 시기에 화합과 소통을 화두로 내세운 종단의 출범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종단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에서 종단과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가야할 사회 각계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로드맵 현실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해봉 한나라당 국회의원 불자회장은 “소통과 화합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며 “국회와 불교계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社告 ‘일연·삼국유사 학술대회’ 논문 공모

- 공 모 분 야
 - 주제1. 삼국유사 및 일연전사의 생애와 사상연구
 - 주제2. 중세한국사(고려사) - 고려불교사 포함
 - 주제3. 유적발굴에 관한 연구
 - 접 수 기 간 : 2010년 1월 30일(土)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응 모 자 격 : 삼국유사와 일연전사의 사상에 관심있는 학자와 일반,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전공자
 - 시 상 내 역 : 조계종 총무원장상(300만원) / 국무총리상(300만원) / (사)일연학연구원 이사장 겸 은혜사 주지상(200만원) / 특별상-불교신문 사장상(100만원)
 - 시상자 발표 : 2010년 2월 20일(불교신문 공지 및 개별통지)
 - 문의 및 접수 : (사)일연학연구원 ☎ (054)383-1161 www.ingaksa.org 이메일 : organdy2040@naver.com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 인각사 內 일연학연구원)
 - 주 최 : 인각사·불교신문사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은혜사, 경상북도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각사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신간

왕초보, 禪박사 되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오직 공부할 뿐입니다.

선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공부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편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신간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법화경 공부의 지름길!
법화경의 옛센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편 양장 / 278쪽 / 값9,500원

민족사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편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리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제, 천도제, 예수제, 기도 백팔만년, 율 마니 반배, 흙,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윤창화·일지 지음 / 46편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편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편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쾌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편 양장 / 320쪽 / 값9,500원